

# 목차

I. 개회사 및 환영사	3p
II.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7p
III. 장인의 발걸음	24p
IV.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 展	36p

# 행사 일정

## 1부 시상식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19:00 ~ 19:20	개회사	우범기 전주시장
	환영사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축사	이경훈 국립무형유산원장 / 아마레스월 갈라 심사위원

19:20 ~ 19:30 경과보고

19:30 ~ 19:50 시상식

19:50 ~ 20:00 휴식

## 2부 공연 '장인의 발걸음'

20:00 ~ 21:15 공연 '장인의 발걸음' (부제: 항상일로 向上一路)

# I . 개회사 및 환영사

# 1 개회사

무형문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 그리고 무형유산 산업화 특별전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에 걸음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춘 순간에도,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활동을 지속해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승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존재합니다. 비록 서로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무한한 힘과 그 가능성을 믿고, 이 소중한 유산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한 상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 소실되어가는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모든 이들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인류의 자산이기에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인 이곳 전주에서의 세계무형유산대상이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목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부제: 향상일로)은 지역·세대·종목 간에 교류하는 가장 전주다운 공연입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 ‘북’과 ‘징’을 만드는 기술 분야 무형문화재와 전주를 대표하는 예능 분야 무형문화재 분들의 종합 연희극입니다. 전주만이 가능한 전주만의 새로운 시도를 오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은 장인들의 작품을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보는 특별전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모티브로 하고, 그 안을 장인들의 작품으로 꾸며 전주의 전통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장인의 삶과 정신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다시금 부활 되어 전주가 중심이 된 ‘전통문화의 신 르네상스’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 출연자 및 제작자 분들과 특별전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전’에 함께해주신 무형문화재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그 가치가 빛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시장 우범기

# 2 환영사

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전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무형유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 그리고 무형유산 산업화 특별전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형유산을 통해 지역사회 자부심을 돋우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안카 라이크(Anka Raic) 님, 지역 토착민 집단의 문화를 보호하며 지역민들에게 공예품을 교육하는 필리핀의 이푸가오(Ifugao) 박물관, 교육으로 전승 체계를 다지고 연구를 통해 보호와 산업화까지 노력하는 폴란드의 설파타(Serfenta) 단체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끊임없는 열정으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공모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유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은 전통을 잇는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고행을 소리와 춤·음악으로 표현한 종합 연희극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와 전북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의 기술과 일생을 전북무형문화재 판소리 송재영 보유자와 판소리장단 조용안 보유자, 전주기접놀이보존회가 전합니다.

이번 공연은 기능 분야·예능 분야의 보유자들과 여러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무형유산도시 전주만이 가능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무형유산의 교류와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공연을 만들어주신 무형문화재 선생님과 공연팀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전주 장인들의 열과 혼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 특별전이 열립니다. 시대의 변화로 대부분의 장인들이 전통을 전승하는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장인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도한 전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와중에도 변함없이 무형유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전 인류적 노력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우리 시가 무형문화유산의 중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 3 축사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시대마다 변주하며 재창조되는 무형유산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다양성의 원천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현해 우리가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류 공동체를 이어주는 유산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입니다.

전주시는 이런 무형유산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보호와 전승을 위해 힘쓰며, 무형유산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상자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선정해 세계무형유산의 전승과 보호,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전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인류무형유산으로 포섭하는 전주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첨단화 되고 현대화가 가속화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통의 가치를 고민하지만, 가치를 잇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시작하고, 세계 각국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상식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수상하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안카 라이크(Anka Raic)'님, 필리핀의 '이프가오 박물관(Ifugao Museum)', 폴란드의 단체 '설판타(Serfenta)'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립무형유산원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장 이 경 훈

## II.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1 여는 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IAPICH)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제정한 국제적인 상입니다. 본 상상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사회적 결속 및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국제적인 공동체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주의 정체성은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른바 법고창신의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같습니다. 2019년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 증진을 위해 전주시가 앞장서서 뜻깊은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민족·종교·성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공로를 기리며 상징성이 큰 상과 상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구촌의 화합과 인류문화의 창달,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시상이 자랑스럽게도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전주는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낡고 노후된 것이라고 폄하하지 않고, 무형의 유산을 첨단과학 기술 시대의 꽃으로 활짝 피우고자 합니다.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에서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수많은 개인·단체가 본 대상에 지원하고 있어, 그 뜨거운 호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본 대상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활동에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정신과 활동을 기리며, 무형유산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사무국**  
**무형문화연구원**

# 2 축하 I

2022년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JIAPICH)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4년 연속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시상하고 있는 전주시장님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선정되어 각별히 의미가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올해도 후보자 선정 과정이 전문적이고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심사 절차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수준과 지역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심사위원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2019년 개최된 이래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개인과 단체들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해주면서 단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는 국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통해 전주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접근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임을 증명했고, 강력한 리더십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된 이 상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탁월한 기여를 한 안카 라이크 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서, 유럽), 이푸가오 박물관(필리핀, 아시아) 그리고 신판타 협회(폴란드, 동유럽)가 2022년 수상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심사위원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자문기구 NGO FORUM 운영위원장**

**캐나다 라발대학교 민족사학과 교수, 문화재연구소 소장**

**로리에 튀르즈정 Laurier Turgeon**

## 3 축사 II

미국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치학과 전쟁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회화, 시, 음악, 건축, 조각상, 태피스트리, 도자기 등을 공부할 수 있으려면 그 아버지가 수학과 철학, 지리, 자연사, 해군 건축, 항해, 상업, 농업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JIAPICH는 애덤스의 명언과 비전에서 언급한 예술의 영역이며, 정치학, 수학, 철학을 넘어서는 인간의 중요한 활동 영역을 기리고 경축하는 자리입니다. '잠자는 미녀'와 같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한 언어를 활성화하거나 재생하는 무형유산 보호활동이 소홀히 취급되는 상황 아래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우리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율성, 지적 주권, 영성 및 복지가 증진된 우리 미래를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심사위원**

**호주 유대인학협회 회장,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연구소(AIATSIS) 회원**

**길라드 주커멘 Ghil'ad Zuckermann**

## 4 상패 헌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옷칠장 보유자 이의식은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만의 특별한 상패를 제작하였습니다.

상패는 잣나무라고도 불리는 홍송으로 제작하여 몇 대에 걸쳐 전해져도 뒤틀림 없이 온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흙, 돌, 옷 등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상패를 칠하고, 나전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의 예술혼을 발휘하여 탄생한 이 상패는 이곳 전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밝히는 영롱한 빛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옷칠장 이의식**



## 5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



안카 라이크 (Anka Raic)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안카 라이크는 무형유산을 전승·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당국, 민속협회 및 기관,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매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년시절 민속학회 “KUD Mladost Mostar”의 회원이던 그녀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면서 전통과 과학의 조합이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보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카 라이크는 1999년 지역사회를 위한 세미나 UHAKUD in BiH를 창립하였고,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단체로 인가 받았습니다. 현재 안나 라이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CIOFF(국제민속축전기구 협의회)의 NGO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당국과 무형유산 보유자, 민속협회 및 기관이 한 곳에 모여 무형유산을 향유하는 공간이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세대에게 무형유산 교육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지역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일부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OVID-19로 인하여 역사가 끊길 위기에 처해있던 무형유산을 기록화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민속축제 개최, 관련 서적 출판, 각종 협회 조직, 미디어 홍보 등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푸가오 박물관 (Ifugao Museum)

/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984년에 이푸가오 공동체에 의해 설립된 이푸가오 박물관은 현재 NM코딜레라 지역박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코딜레라 계단식 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박물관은 필리핀 북부 10개 이상의 원주민 집단이 거주하는 코딜레라 지역의 토착민 집단인 이푸가오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물건들과 기타 유산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방문객들에게 실타래, 면화, 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공단계를 시연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푸가오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토착 기술에 대한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박물관은 학교가 요청할 경우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푸가오 문화와 가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푸가오 계단식 논과 그에 관한 이푸가오의 토착적인 가치와 생활관습에 초점을 맞추어 강연합니다.

아울러 의식을 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문화기사 보도, 토종 공예 및 관행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무형문화유산의 인가를 위한 문화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판타 (Serfenta)**

/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설판타는 폴란드의 NGO로 무형유산의 교육을 통해 전승 기반을 확보하고 연구를 지속하여 산업화로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본 단체는 전 세계의 연구기관, 박물관, 사업체 등과 함께 다양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판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이를 통한 비즈니스의 강조입니다. 무형유산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제작자들에게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는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가 등을 교육하며 이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바구니를 제작하며, 그 안에 든 가치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설판타의 활동은 폴란드 내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일본·두바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전시·강연·워크숍은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설판타는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세계 시민들과 무형유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전시·강연·워크숍은 비단 설판타의 주 대상인 바구니만을 소재로 삼을 뿐 아니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방안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설판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의 SNS를 활용하여 무형유산에 대해 능숙하고, 민감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6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진행경과



**3월**

국제 공모 시작



**5월**

후보자 적격 여부 검토



**7월**

수상후보자 발표 및 공개 검증



**10월 19일**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9월 23일-25일**

2022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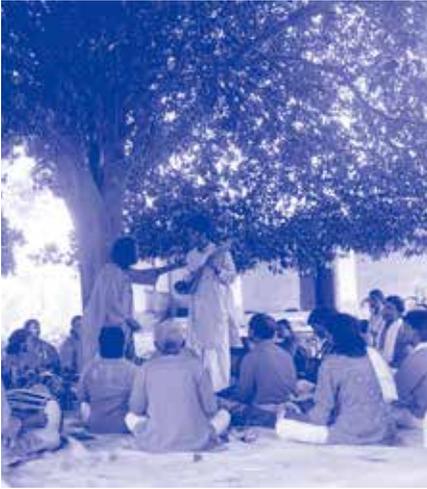


**8월**

선정 결과 통보

# 7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역대 수상자

2019년 수상자



컨택트 베이스 (Contact Base)

/ 인도 (India)

컨택트 베이스는 인도의 NGO 단체로, 인도의 전통예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예술을 지키는 예술가 및 공동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 예술(Art for Life)’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동인도 지역의 30개 이상의 공예단체와 28,000여 명 전통 무용가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며,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 캐나다 (Canada)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은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섬과 라브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이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지역에 알리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기반의 워크숍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축제를 기획하여 국제적인 홍보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미드 스콘티 (Ahmed Skounti)

/ 모로코 (Morocco)

아미드 스콘티 박사는 지속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2003년도 협약 수립 및 2006년도 무형문화유산 협약 이행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과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주로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아랍 지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정책 발전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는 전문가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Canada)

## 2020년 수상자



아사마 (ASAMA)

/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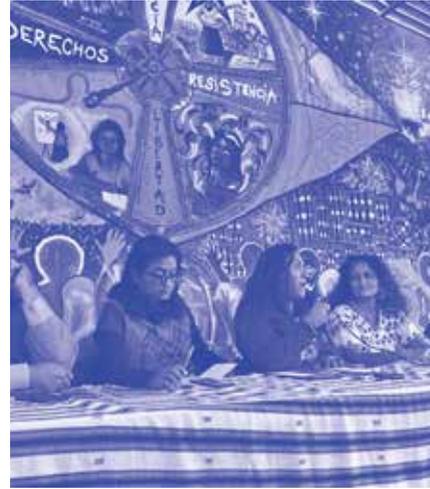
아사마는 부르키나 파소의 전통가면 보존회입니다. 부르키나 파소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 가면과 그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모여 1995년 아사마를 설립하여 전통 가면과 문화 보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사마는 가면에 담긴 부르키나 파소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와 관련된 무형의 유산을 사회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히우 덕 뷰 (HIEU DUC, VU)

/ 베트남 (Viet Nam)

히우 덕 뷰는 '몽족문화공간박물관'의 관장입니다. 히우 덕 뷰는 소수 민족인 몽족의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몽족 박물관은 몽족의 유물 전시, 의식,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하여 대중들에게 소수 민족 몽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류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수 민족의 문화를 숭수수범해서 보전하는데 앞장서 용기, 희생, 박애 정신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NGO 임팩토 (NGO Impacto)

/ 멕시코 (Mexico)

임팩토는 지역의 장인과 함께 직조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생산품을 알리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장인들과 함께 지역 주민을 훈련하여 전문기술자로 육성하며 그 명성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창조적 민속예술도시 선정에 공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장인들의 직조기술 전승, 보존,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멕시코(Mexico)



**딜 쿠마르 바라히** (Dil Kumar Barahi)

/ **네팔** (Ne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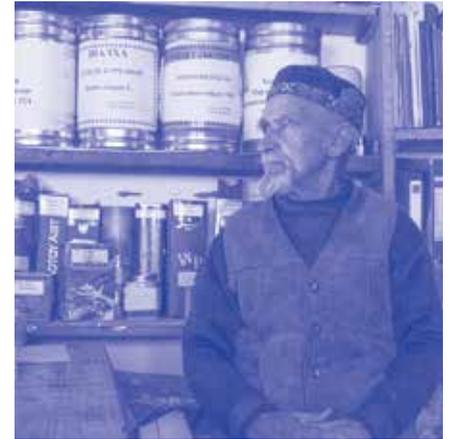
의례용 수레 제작은 네팔과 남아시아 사원의 필수적인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의례용 수레 제작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기술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바라히 공동체 안에서 구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히 공동체의 리더인 딜 쿠마르 바라히는 어린 시절부터 공예품 제작 기술을 배웠으며, 50년 이상 연민의 신 카루나 마야의 수레 제작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세대 간 무형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을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젊은이들의 참여를 장려하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잃은 세대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엘 펠제** (El Fèlze)

/ **이탈리아** (Italy)

엘 펠제는 2002년에 베니스에서 설립된 곤돌라 제조업협회입니다. 엘 펠제는 보트, 노, 포콜라 (Focola), 가구, 장식 및 액세서리를 만드는 100여 명의 장인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 그 표현, 관행 및 지식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하며, 특히 어린이와 교사를 위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학교의 수업에도 참여합니다. 또한 엘 펠제는 도가레 스호는 베니스에 방문한 교황이나 국빈을 모시는 곤돌라의 복원작업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엘 펠제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베니스 고유의 곤돌라 기술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무형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쉬린벡 다블라마마도** (Shirinbek Davlatmamadov)

/ **타지키스탄** (Tajikistan)

쉬린벡 다블라마마도 박사는 1996년 생물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굴루 기요(Gulu Giyoh)를 설립하였습니다. 외과 의사인 쉬린벡 박사는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타지키스탄의 미래 세대에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지키스탄 파미르 산악지역 사람들의 고유한 전통지식, 언어, 문화 등을 알리며, 파미르 산악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파미르 민족의 문화를 디지털화하여 웹 사이트를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 8 JIAPICH 수상자의 이후 활동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주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는 무형문화유산의 모범적인 전승자입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으며, 대상 수상 이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히우 덕 뷰 : 베트남, 몽족박물관 관장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문화유산에 대한 잊혀진 의식을 되살리고 전통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키 레온세 : 부르키나파소, 아사마 원장

“코로나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 몬세레 아귀레베레 : 멕시코, NGO IMPACTO 부원장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NGO IMPACTO에게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을 통해 NGO IMPACTO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멕시코 소수민족의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아미드 스킨티 : 모로코, 국립고고학유산과학연구소 교수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은 현지 모로코 신문, 라디오, SNS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로코 무형문화유산이 자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졌으며, 국민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 아난나 바다차리아 : 인도, 콘택트 베이스 원장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지역의 민속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콘택트 베이스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여를 인정해주신 전주세계무형문화유산대상 주최 도시인 전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데일 자비스 :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유산재단 대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한 후 운영비를 확보하여 무형문화유산 목록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보유자와 전승자의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통공예가들과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해 활동들을 구상하여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 III. 장인의 발걸음



향  
상

일  
로

절 대  
전 리 에  
이 르 는  
외 길



## 1 인사말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 49건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무형유산 ‘교류’와 ‘거점’의 교역지로서 지역·세대·종목이 교류하고 기·예능 무형문화재가 함께하는 무형유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부제: 향상일로 向上一路)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선보입니다.

타악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특히 북과 징은 한국의 대표 타악기입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 『육도(六韜)』에 의하면,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을 울리면 후퇴하고 방위에 따라 오방기를 사용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타악기를 찾아볼 수 있죠.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 북과 징이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하모니를 이번 무대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북매우기) 임선빈 보유자가 가족을 메어 큰 울림의 북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북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고 두드리며 종과 징을 제작합니다. 두 장인이 만들어 낸 악기를 전북무형문화재 판소리 송재영 보유자와 판소리장단 조용안 보유자, 전주기적놀이보존회가 연주하여 본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음악은 시대를 관통하여 끊임없이 변주됩니다. 신세대 뮤지션들인 세악사 밴드와 합굿놀이, 윤영진·양혜원 소리꾼의 협연을 통해 가장 오래된 악기를 가장 새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가 있기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전통을 잇는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고행을 소리와 춤·음악으로 전달하는 무형유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 분들도 오늘의 공연이 더욱이 뜻깊은 울림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무형유산 큐레이터 그룹  
프롬히어**

## 2 장인의 발걸음 의의

좋은 악기(樂器)란 숙련된 솜씨의 장인(匠人)과 뛰어난 실력의 예인(藝人)을 거쳐 다듬어 집니다. 본 공연 장인의 발걸음은 장인에 의해 전승되고, 예인에 의해 연주되는 한국 타악기의 다듬새를 전합니다. 또한 절대 진리에 이르는 외길을 의미하는 부제 향상일로(向上一路)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전통을 잇는 무형문화재의 삶을 무형유산의 도시 전주에서 마주합니다.

첫째, 무형유산이라는 가치이지만 낯선 무언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물을 짜거나 그릇을 빚는 등 온종일 한 공간에서 작업만 하는 전통기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삶을 접하기는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 그 속에 있는 삶이 우리 일상에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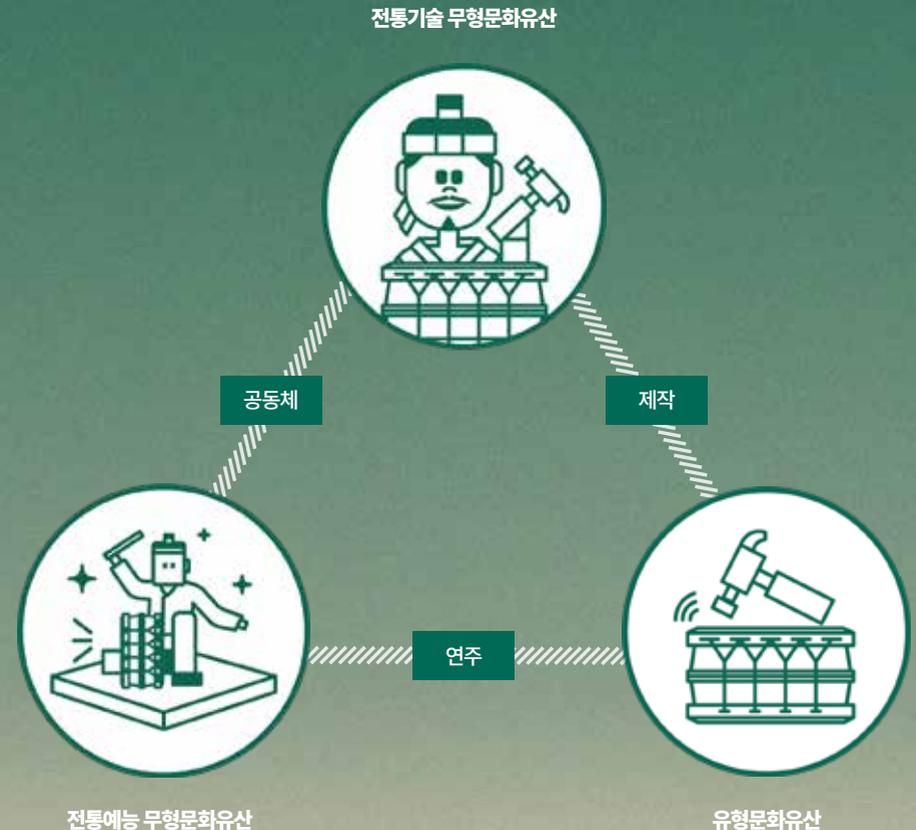
둘째, 대표적인 전통 타악기인 북과 징을 제작하는 장인의 삶과 제작기술을 조명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악기는 전통예능 무형문화재와 신세대 국악인들에 의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두 장인의 이야기에 음악을 더하고 그들의 악기를 연주하여 감동의 무대로 전합니다.

셋째, 문화재청과 전주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전승, 교육, 공연 등 다양한 무형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전과 진흥을 도모합니다. 그 일환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과 세대, 종목이 교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잇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삶을 이곳 무형유산도시, 전주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공연 '장인의 발걸음'의 무형유산 전제

오랜 세월의 전통을 잇는 기·예능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고행을 소리와 춤·음악으로 표현한 종합 연희극



# 3 무형유산 특별기획 공연 장인의 발걸음

## PART 1. 프롤로그

무형문화재 악기장 임선빈과 방짜유기장 이종덕, 두 장인이 마주한다. 우리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바라본다.

## PART 2. 기다림과 두드림

하염없이 기다리고 두드리며 악기를 만들어 내었던  
두 장인의 작업 과정과 그 속에서 다져진  
삶의 철학, 기다림과 두드림을 영상과 함께 춤과  
음악을 통해 형상화한다.



## PART 3. 마음의 소리

두 장인의 분신인 북칠(임선빈 악기장)과 방짜(이종덕  
유기장)가 등장하여 나누는 소리와 재담으로 그동안  
각자 살아온 내력과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 PART 4. 흐르는 물처럼, 꺼지지 않는 불처럼

악기장 임선빈과 방짜유기장 이종덕이 직접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의 영상·실연·공연 등을 통해 악기가  
탄생하는 과정 전반을 보여준다.

## PART 5. 시(時) + 간(間)

두 장인이 무대 위에서 소리북과 쇠를 만드는 마지막  
제작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악기의 탄생을 널리 알리는  
소리와 풍물놀이가 펼쳐진다.

## PART 6. 동행(同行)

살아간다는 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살아간다는 건  
오늘과 오늘을 이어가는 것

기다리고 이어가며 기억했던 수많은 나날  
나날이 오늘이소서

거친 땀방울 맑디 맑은 샘물 되어  
마음의 소리로 살아나고  
거친 숨소리 힘찬 울림 되어  
영신의 복으로 살아오는  
오늘이 오늘이여라

거친 손 서로 잡고  
향상일로 함께 가는  
나날이 오늘이여라

거친 숨 몰아쉬며  
향상일로 함께 가는  
나날이 오늘이여라

〈동행〉 中

## PART 7. 에필로그

오래도록 치열하게 한 가지 일을 해온 사람,  
무형문화재.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 4 장인의 발걸음 출연진

무형문화재

지역 장인간의 만남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임선빈**



전북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보유자 **이종덕**

기술인과 예능인의 만남



전북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송재영**



전북무형문화재 판소리장단 보유자 **조용안**



전북무형문화재 전주기집놀이 **합굿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

## 아티스트



소리꾼(방짜) 양혜원



소리꾼(북칠) 윤영진



대북연주자 이순하



창작 재즈 아티스트 그룹  
세악사 용리·김은수·강환수



창작 무용팀  
JUBIN Company

총 연 출	박강의
극 작	박강의·홍예림
음악 감독	김백찬
작 창	방수미
작 곡	김백찬·김아성·용리·합굿마을
기술 감독	박종화
영상 감독	이정준
영상 촬영	김상진·이정준·이동주
조명 감독	서용호
음향 감독	송우현
조 연 출	진소연
안무 감독	김주빈
무대 감독	윤형호
무대 디자인	안치윤
의상 감독	박근여

## 5 북과 징 이야기

리듬을 타거나 몰입하기 위해 무언가를 두드린 적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추는 행동만으로도 태초의 악기가 왜 타악기인지 설명해줍니다. 타악기를 뜻하는 경(磬)은 돌[石]을 쳐서 만든 소리[聲]를 합한 글자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 주변의 돌이나 옥, 가죽, 금속을 두드린 것이 타악기 역사의 시작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쇠로 된 북[金鼓]이 남아있는데, 형태는 북이지만 재료는 금속입니다. 북과 징의 경계가 이전부터 타악기라는 속성에 묶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타악기인 만큼 북과 징은 전쟁 시 전진과 후퇴를 알리는 악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오례 중 군례 <대열의>에서 북을 치면 깃발을 들어 행진하고 징을 치면 멈추었다고 합니다. 함께 사용되는 악기인 만큼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병조와 군기감에 북 장인[鼓匠], 징 장인[鑼匠]을 두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인에 관한 내용은 단편적이지만 북과 징을 제작한 장인은 분명히 존재했으며, 그 기술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 6 두 장인의 이야기

## 약기장 임선빈

국가무형문화재 약기장(복메우기) 임선빈 보유자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살 때 한국전쟁을 겪고 고아가 되면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전남 여수 덕양에서 열린 시장에서 소가죽을 구하러 오신 황용욱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복을 만들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70년 세월 동안 매일 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 대북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1998년에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 개최식 대북을 제작 및 기증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약기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방짜유기장 이종덕

전북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는 비가 오면 집에 물이 그대로 들어올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11살 이른 나이에 뽕튀기나 칠보공예 등 안해본 것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독교 군중병을 할 만큼 독실한 신앙 생활을 하기도, 민속과 불교약기를 만들고 다룰 만큼 심도있게 불교에 몰입하였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가졌을 때, 어느 스님이 내려와 큰 스님이 될 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종덕은 자신의 삶과 업을 돌아봤을 때 종교적 수행으로서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복기합니다.

40년 세월 동안 방짜유기를 제작하였습니다.

1994년 전승공예대전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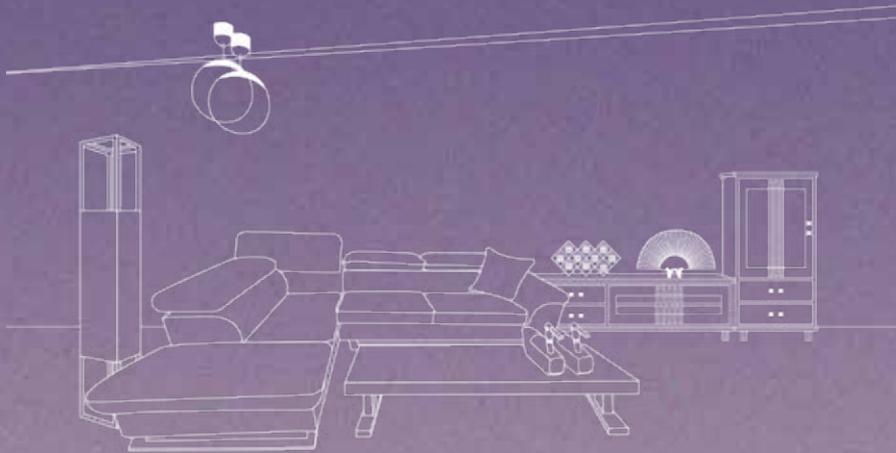
2011년 전북무형문화재로 인정되었습니다.



# IV.

무형유산 산업화 특별展

##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



일시 : 2022.10.18.화 - 10. 24.월 (7일간)

장소 : 카페 디자트 (디자트 가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45 1층)

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은 전주시와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2022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인들의 작품을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보는  
특별전입니다. 전주 일반 가정집을 모티브로 하고, 그 안을 장인들의 작품으로 꾸며  
전주의 전통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장인의 삶과 정신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다시금 부활되어 전주가 중심이 된 '전통문화의 신 르네상스'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통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대부분의 장인들이 전통을 전승해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전주 장인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열과 혼이 일상의 공간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형태로 실제 판매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형유산의 건강한 생태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전주 장인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우리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① **고수환**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약기장\_가야금
- ② **김년임**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전통음식\_전주비빔밥
- ③ **김선애**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지승장
- ④ **김선자**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매듭장
- ⑤ **김종연**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민속목조각장\_목조각
- ⑥ **김한일**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야장
- ⑦ **김혜미자**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색지장\_색지공예
- ⑧ **박계호**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선자장\_합죽선
- ⑨ **방화선**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선자장\_단선
- ⑩ **변경환**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배첩장
- ⑪ **신우순**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단청장
- ⑫ **엄재수**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선자장\_합죽선
- ⑬ **유배근**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한지발장
- ⑭ **윤규상**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지우산장
- ⑮ **이신입**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낙죽장
- ⑯ **이의식**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옷칠장
- ⑰ **이종덕**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 ⑱ **조정형**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향토술 담그기\_이강주
- ⑲ **최대규**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나전장
- ⑳ **최동식**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약기장\_거문고
- ㉑ **최종순**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약기장\_대금

여기, 전주 장인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주 장인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롯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손길로 하나의 마음을 담아 빚어낸 장인들의 작품을 소장함으로써 일상의 순간을 빛나게 합니다.

특별전에 함께한 전주 장인을 소개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 (사)무형문화연구원

김형근, 오세미나, 서순례, 홍신화, 최다운, 김유진, 오수연, 김혜빈

### (주)프름히어

설지희, 김지현, 서정화, 정선영, 이솔이, 김세인